

B1

누에품종 육성 현황 및 발전방향

강 필 돈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

오늘 날 누에품종 육성은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육종의 목표와 중점이 바뀌지고 있다. 특히 시대흐름, 사육기술의 변천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서는 잠업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. 최근에는 시대요구에 부응하여 육성된 누에의 용도도 누에가루, 동충하초, 수번데기 및 수나방이용 강정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. 현재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장려잠품종은 춘잠기용 8품종, 추잠기용 6품종, 춘추잠기 겸용 2품종 등 모두 16품종이다. 이들 보유품종 중 80%이상이 강건·다사량품종으로서 누에의 다기능, 다용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강건성과 다수성 이 두 형질을 만족하는 품종의 육성이 최고의 육종목표가 되었었다. 그러나 1990년 증반이후 누에의 용도 다양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육종목표도 이에 맞춰 비대충체품종, 생력형품종, 한성란·한성잠·한성황견잠품종, 나용품종, 교육·홍보용 품종 등 기능성 위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. 따라서, 앞으로의 육종방향은 새로운 육종기술의 개발과 광범위한 육종소재 탐색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또한 전통적 육종기술과 유전공학적 육종기술을 접목하여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누에 품종을 육성하여 새롭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, 누에용도 다양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. 과거 우리나라의 잠업은 양질의 고치생산을 위주로 숨가쁘게 한 길만을 달려왔다. 앞으로는 누에 육종은 우선적으로 고치생산을 기본으로 하되 시대흐름과 요구에 부응하는 고효율 다기능성누에 개발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. 침체되어 있는 양잠농가 및 관련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전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기능성 누에의 출현이라고 본다.